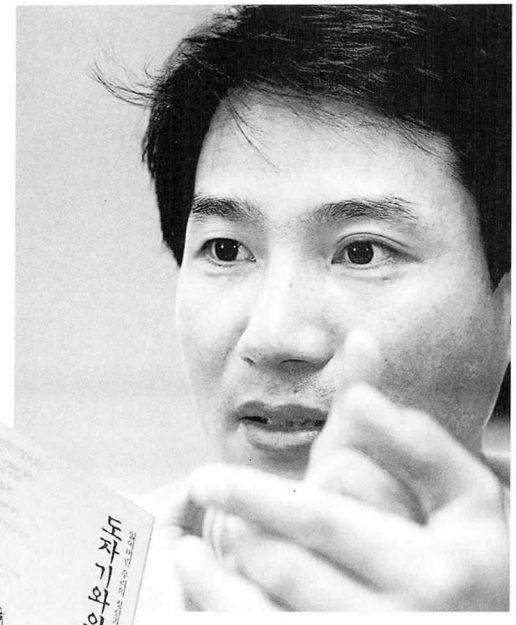
한 사람의 삶을 끌어당긴 도자기의 매력

《도자기와의 만남》 펴낸 전충진씨



전충진씨

리수/A5신/240면/13,000원

전충진씨(《매일신문》 기자, 41)가 펴낸 《도자기와의 만남》은 도자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에는 고려청자의 특별함, 일본에서 꽃피운 한국의 도자기 문화, 일본의 국보가 된 한국의 막사발 등을 주제로 한국도자기의 우수성과 '자유분방함'으로 대표되는 미의식을 다룬다. 이어 좋은 도자기를 구별하는 방법, 도기와 자기의 차이, 도자기를 만드는 흙과 물감 등 도자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이 책은 자신의 아내에게 도자기에 대해 설명하는 형식으로 꾸며져 있다. 아내가 질문을 하면 전씨가 대답하는 대화체 형식은 읽는 맛을 더한다. 그러나 정작 그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미학이나 도자사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다.

전씨가 도자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건 대학시절로 거슬러올라간다. 대학시절 그는 지도 교수에게 차를 배웠는데, 맘에 드는 차그릇을 한 벌 갖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의 그로서는 어떤 차그릇이 좋은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좋은 차그릇을 구하기 위해 적지 않은 날들을 헤매고 다녀야 했다. 이 차그릇에 집착하다 보니 관심은 자연히 도자기로 옮겨온 것이다. 도자기에는 뭔가 신비스러운 매력이 숨어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부터 그는 틈만 나면

> "수많은 전통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도자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자기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 어느 곳의 도자기 문화에도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도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죠."

도자기 자료를 모으고 전국의 도자기 가마와 요장을 찾아다니며 도자기 순례를 떠났다. 우리 도자기가 일본의 도자기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일본에도 여러 차례 건너갔다왔다.

"처음부터 도예인들이 선뜻 말상대를 해준 것은 아니었어요. 기자라는 신분이 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죠. 더러는 신문에 소개하는 대가로 도자기를 요구하는 기자들도 있었다는군요."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 그는 한번 가서 말을 붙이는 데 실패한 곳은 몇 번씩 다시 찾아가곤 했다. 그렇게 그는 몸으로 뛰며 직접 사진도 찍고 도예인들과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도예인들의 삶과 작업을 생생한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다. 그런데 자료가 갖춰지고 '이 땅의 도예인'이라는 제목으로 글의 초고를 완성해가던 무렵 그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밤손님'이 들어 그의 노트북 컴퓨터를 달랑 들고 가버린 것이었다. 프린트도 해놓지 않은 터라 그의 상실감은 더했다. 그때 이후로 그는 도자기의 '도'자도 듣기 싫었다.

10년 넘게 모아온 자료들이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됐다는 생각에 술로 허송세월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아내가 느닷없이 물었다. "혁이 아빠, 당신은 청자가 좋아요, 백자가 좋아요?" 아내의 질문은 그가 처음 도자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할 때 궁금해하던 것이었다. 그는 허탈한 마음을 추스리고 초심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질문하는 자세로 그의 자료들을 재구성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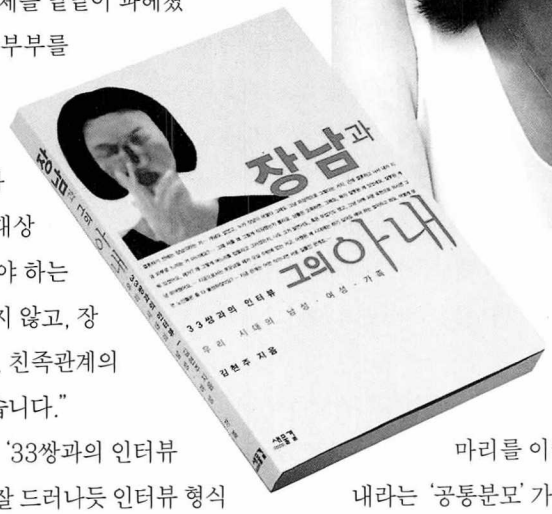
도자기에 대한 책을 펴낸 사람이니 집에 값나가는 도자기가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의 집에는 주로 그리 비싸지 않은 생활도자기들이 많다. 도자기는 보고 즐기는 것뿐 아니라 생활에서 직접 사용해보면서 그 귀중한 쓰임새를 확인하는 것이 도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게 그의 믿음이다.

"수많은 전통문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 도자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도자기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 유럽 등 어느 곳의 도자기 문화에도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도자기의 가치를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죠." —김장근 기자

가족, 그 달콤쌉싸름한 풍경의 빛과 그림자

《장남과 그의 아내》 펴낸 김현주씨

김현주씨



새물결/A5신/312면/12,000원

가족과 여성문제에 깊이 천착해온 사회학자 김현주씨(40)가 드디어 '일'을 냈다. 우리시대 가장 예민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가족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쳤기 때문이다. 그가 펴낸 《장남과 그의 아내》는 장남부부를 통해 한국가족의 특수성과 변화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장남은 조상의 대를 이을 존재, 가족 내에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우선의 배려대상이죠. 또 '효'라는 형태로 일련의 보상행위들을 해야 하는 특수한 세대입니다. 제목을 장남과 맏며느리라고 하지 않고, 장남과 그의 아내라고 한 것도 수직관계를 수평관계로, 친족관계의 고리를 끊고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 책은 '33쌍과의 인터뷰 — 우리 시대의 남성 · 여성 · 가족'이란 부제에서도 잘 드러나듯 인터뷰 형식이다. 그는 두 남녀의 만남부터 결혼, 결혼 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가족, 그 달콤하고 쌉싸름한 풍경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추면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과 수용해야 할 의무의 내용을 스스로 재해석하게 만들죠. 실제로 장남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실체는 장남이 아니라 그의 아내입니다."

"학위를 받기 위해선 먼저 논문 프로젝트를 제출해야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가족문화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프랑스 지도교수에게 어떻게 논문의 타당성을 검증받을 것인가 하는 거였죠. 지도교수는 장남부부의 문제점을 입증할 샘플을 강력히 요구했고, 그 샘플을 준비하기 위해 두차례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터뷰 대상자들을 찾아 4개월 남짓 동안 정신없이 헤맸죠."

인터뷰는 우선 지인을 시작으로, 그 다음엔 소개를 받아 릴레이로 이어졌다. 그는 인간관계의 섬세한 '결'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이 책의 인터뷰 부분은 말의 토씨하나, 머뭇거림, 이야기의 전환 등 조사 대상자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 인상적이다. 물론 그 뒤엔 수십개의 녹취테이프를 듣고 또 들으며 적당 부분을 인용해 전체적인 얼개를 짜 맞춘 그의 남모를 공이 숨어 있다. 그래서일까. 그는 그 테이프들을 '끔찍이' 아낀다. 그 속엔 33쌍 장남부부의 애환뿐 아니라, 그 또한 장남의 아내로 살아온 삶의 내력이 투영돼 있기 때문이다. 그가 인터뷰 대상자들을 만나 좀처럼 진전이 없는 대화의 실마리를 이끌어낸 것도 어찌 보면 장남의 아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부부관계와 세대관계가 얽히는 장남부부의 경험을 '증여'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주고-받고-되돌려주는' 순환적인 흐름으로 인간관계를 파악할 때, 장남부부의 결혼생활은 장남과 부모간의 증여순환에 장남의 아내가 연루되는 것이다. 장남부부의 성격을 장남의 아내들이 받아들이는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석한 점도 기존의 연구서들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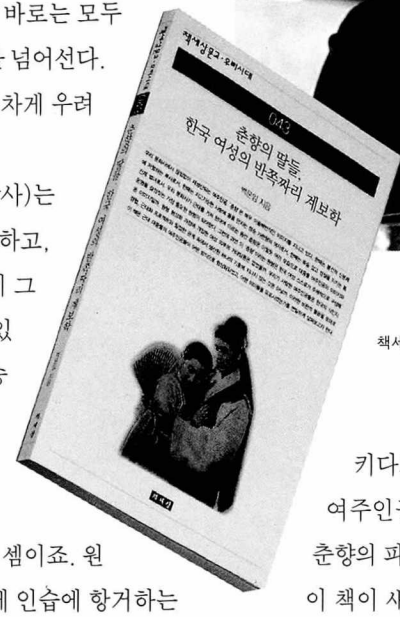
"오늘날 가부장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변화의 진앙은 일차적으로 장남과 결혼한 기혼여성의 경제적 지위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추면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역할과 수용해야 할 의무의 내용을 스스로 재해석하게 만들죠. 실제로 장남의 역할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실체는 장남이 아니라 그의 아내입니다."

명쾌한 결론이지만, 이 결론을 통해 독자에게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는 듯하다. 그는 현재 지역아카데미 연구원으로 일하며 농촌개발과 여성성의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그동안 사회학적 논의 속에서 구멍뚫렸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생각이다. 여성흡연, 상속문제, 형제자매관계 연구 등이 이 책의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 박옥순 기자

춘향이란 거울로 비춘 근대 대중문화의 안과 밖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 펴낸 백문임씨

백문임씨



책세상/B6변형/170면/4900원

《춘향전》은 몇편이나 영화로 만들어졌을까? 재작년 임권택 감독이 〈춘향뎐〉을 내놨을 때 영화판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다. 《씨네21》이 조사한 바로는 모두 17편. 영화가 이 정도니 잡다한 인접 장르까지 더하면 수백편을 넘어선다. 남들이 보면 입이 떡 벌어질 만한 숫자고, 사람에 따라선 "줄기차게 우려먹는구나" 하는 느낌도 받을 법하다.

연세대에서 국문학과 영화를 공부한 백문임씨(34, 연세대 강사)는 어느날 이 현상이 궁금해졌다. 이런저런 잡지에 영화평을 기고하고, 이야기와 영상의 접목에 관심을 높여가던 중, 느닷없이 춘향이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모습은 낯설었다. 백씨가 알고 있던 춘향은 천한 기생의 딸에서 어사또의 안방마님으로 신분상승에 성공하는 주체성 강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임권택의 〈춘향뎐〉을 비롯해 춘향을 리메이크한 국내 영상물들은 춘향을 눈내리깔고 순종하는 양갓집 규수로 묘사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춘향은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옷을 바꿔입은 셈이죠. 원래 춘향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에 몸을 던지긴 했지만 봉건제 인습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도 갖췄죠. 그러면서 열녀사상을 등에 업고 신분상승을 꾀한 반근대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춘향은 시대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옷을 바꿔입은 셈이죠. 원래 춘향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에 몸을 던지긴 했지만 봉건제 인습에 항거하는 투사의 이미지도 갖췄죠. 그러면서 열녀사상을 등에 업고 신분상승을 꾀한 반근대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백씨는 대중문화가 춘향을 리메이크하면서 왜 '정절' 이라는 코드만 선택 수용했는가 하는 의문이 먼저 들었다.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이광수의 《무정》에 그려진 영채,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의 여주인공 홍도의 삶을 추적하면서 "어쩌면 '팔려가는 딸' 과 '현모양처' 로 그려져온 '춘향이들' 이 우리의 식민지 경험, 근대화 프로젝트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생성된 하나의 기호는 아닐까?" 하는 문제의식이 발동했다. 이건 이야기가 되겠다는 '느낌' 이 왔고, 그때부터 춘향은 백씨의 눈앞에서 어른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성과물이 이번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으로 묶여 나오기까지는 의외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애초의 계획이 엄청나게 커져버렸기 때문이다.

원래는 근대 들어 리바이벌된 《춘향전》을 분석할 생각이었지만, 논의를 진전시키다보니 그냥 일반적인 영상물들에 등장한 여주인공들에게도 관심이 미쳤다. "그들 또한 춘향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이 책이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근대 대중문화 속의 여주인공들은 '정절' 이란 자장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몰락한 양반집 딸이든, 삼각관계의 당사자든, 팔려가는 딸이든, 그들이 대중의 사랑과 연민을 얻을 수 있었던 힘은 '전통가치' 를 구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식민지 시절의 대중들은 이 여주인공들의 '빼앗긴 정절' 에서 나라를 빼앗긴 슬픔을 읽었던 것이다. 이런 소통구조 속에서 여주인공들의 주체적인 욕망은 타락한 근대적 가치와 동일시되며, 그들의 정조는 가부장과 민족이라는 거대한 주체의 재산으로 관리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이들은 가부장-민족의 노스텔지어를 충족시키는 가장 적절한 대상이었고 동시에 가부장-민족의 무능과 불안을 상기시키기도 하는 복합적인 주체였다.

"이 책은 가설로 가득 차 있어요. 《춘향전》을 받아들인 대중정서엔 무슨 통계가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시대적으로 너무 넓게 펼쳐놨어요. 그러다 보니 논의가 좀 성글어졌죠. 하지만 방법론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대략적인 스케치는 성공한 셈이니까요. 한 이삼백년은 왔다갔다 해야 공부하는 것 아니겠냐는 한 선배의 말로 위안삼죠 뭐." —강성민 기자